

미 쇠고기·사료값 직격탄 전남 한우농가 이번엔 브루셀라病 덮쳐

완도 11마리 발병... 올 1천여마리 살처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남 지역 한우 축산 농가들이 이번에는 소 브루셀라 병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 브루셀라 병으로 살처분된 소 매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완도군 청산면 김모(64)씨 농가 등 3개 농가에서 사육중인 11마리의 한우가 브루셀라 병에 걸려 도살처분되는 등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전남지역 총 1천86마리의 한우가 브루셀라 병 감염으로 인해 살처분됐다.

최근 완도군 청산면에 발생한 11마리 한우 중 10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브루셀라 의심 한우가 발생해 전남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직접 조사를 한 뒤 양성반응이 나와 절차에 따라 도살처분했다"면서 "정

산면에는 현재 835마리의 한우가 사육중이지만, 청산면에서 태어나 자란 소들에게는 이상이 없고, 외지에서 반입된 소에게서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에서도 브루셀라로 추정되는 소들이 잇따라 폐사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주민들은 폐사된 소가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근처에 매립됐다며 폐사 원인 규명과 함께 지하수 대책을 세워줄 것을 목포시에 요구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폐사된 농가의 축사 방역과 청결유지를 지시했고 축산기술연구소에 폐사 원인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브루셀라 병 등으로 인한 한우 살처분이 잇따르자 한우 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하락한 한우값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

▲브루셀라 병=브루셀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가축전염병(2종)이자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브루셀라 균에 감염된 동물은 암컷의 임신 후기 유산과 수컷의 고환염 증상 등을 보인다. 별균처리가 안 된 유제품을 사람이 먹으면 전염된다. 사람이 감염되면 관절통이나 감기 증상을 보인다.



중복인 29일 낮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신도회 불자들이 지역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점심으로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위직망기자 jrwi@kwangju.co.kr

“절에서 삼계탕 먹긴 처음이네”

광주 무각사, 독거노인 초청 中伏 대접

“절에서 먹는 삼계탕이라 그런지 더 맛있네요.”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무각사 신도회가 29일 중복을 맞아 지역 독거노인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했다. 신도회 차원의 행사지만 육식을 금하는 사찰에서 삼계탕 요리를 제공한 것은 이례롭게 받아들여졌다.

이날 삼계탕 시식에는 광주 서구 상무1동, 상무2동, 치평동의 독거노인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무각사 신도들의 모임인 신도회가 건강을 챙겨줄 자식들이 없어 보양식도 제대로 못 먹고 무더운 여름을 보낼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삼계탕을 무각사 신도회원이 매달 1회씩 열고 있는 바자회 판매 수익금과 회비로 마련했다. 무각사 신도회인 보현회 송하임 회장은 “사찰에서 삼계탕을 대접한다고 하니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홀로 지내시는 노인들이 삼복더위를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식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원침 (7569) 김장독



다 좋은 건축·산업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 환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원산지 속여 판 식육점 업주

광주지법, 이례적 실형 선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겪으며 쇠고기 원산지를 악의적·상습적으로 허위 표시한 업주들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뒤 수입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육점 업주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29일 미국산 등 수입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2)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올 들어 법원 판결을 분석해보면 육류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허위로 표시한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실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심지어 동종 전과가 있거나 판매 금액이 많을 때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이 검찰의 약식명령에 그쳤다.

쇠고기 시민감시단 선포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3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광주시민감시단' 선포식을 갖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선포식과 함께 동 단위의 시민감시단을 조직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여수서 올 첫 유해성 적조

지난해보다 6일 빨라

여수시 화정면 개도해역에서 올해 첫 유해성 적조가 발생해 수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남해안 일대에 대한 적조 예찰 결과,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여수 보물바다(고흥군 나로도~여수시 남면 금오도 사이) 개도 해역에서 소규모의 적조미가 발견됐다. 이 같은 적조 때 발견은 지난해에 비해 6일 가량 빠른 것이다.

하지만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밀도는 20~200 cells/ml로 아직은 저밀도여서 바다생물에는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부터 코클로디니움 혼합 적조가 보물바다 서쪽해안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며 “앞으로 적조생물의 밀도가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 수산당국은 적조발생 해역에 대한 예찰 활동과 함께 주변 양식어업인들에게 적조방제와 양식장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올해 총사업비 14억5천만원을 투입, 적조 구제물질 1만3천t을 구입하고 산소공급기 125대를 설치했다. 또 적조대책반(4개반 16명)을 구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조발생해역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사전방류를 적극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황토 대체 구제물질을 정 부 차원에서 개발해 주도록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적조로 인해 지난 해 5억8천200만원, 2006년 3천만원, 2005년 9억7천만원, 2003년

176억원, 2002년 30억원 등의 양식장 어패류 폐사피해가 발생했다.

이정섭 군수 보석... 직무 복귀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가 구속된 지 1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직무에 복귀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29일 이 군수에 대해 보석 보증금 5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얼마 전 압수술을 받아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사건 심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택시 훔쳐 영업
○20대 장애인 이 흥친 택시를 이용해 이틀간 광주 시내에서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탐미.

○2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장애 2급인 나모(24)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에 광주시 서구 광천동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김모(31)씨의 영업용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도난당한 택시가 시내에서 운행중이라는 동료 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씨를 검거했는데, 조사결과 무면허 상태였던 그는 진짜 택시기사 흉내를 내며 이틀동안 영업을 해왔다고.

○동부경찰 관계자는 “절도전과 6범인 나씨에 의해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무면허 상태였던 그가 어떻게 택시를 몰았고, 영업을 했는지 미스터리”라고 가우뿔.

‘거짓 청첩장’ 교장 서훈 신청 취소

‘거짓 청첩장’을 발송해 물의를 빚은 광주 S중 Y 교장에 대한 서훈 신청이 철회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장기근속 교육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포장 대상자에 대한 대통령 결재가 떨어지던 뒤에는 취소 절차가 복잡

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Y 교장에 대한 서훈 신청을 유보해달라고 공문을 띄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직위해제 상태인 Y 교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징계 결과가 견책 이상일 경우 훈·포장은 자동적

으로 취소된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등 수령에는 큰 문제가 없다.

40년 3개월 동안 교원으로 재직해 황조근정훈장을 받을 예정이었던 Y 교장은 최근 둘째 아들의 ‘거짓 청첩장’을 교직원 등 지인 340여명에게 발송한 뒤 축의금까지 받아 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바 있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

11255300-9999